

보건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개최 의의와 향후 추진방향

박 병 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은 국제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활용가능성과 파급효과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등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발전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전산화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자료, 통계청의 사망자료, 국립암센터의 암등록자료 및 각 병원의 EMR자료 등 정형화된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일찌감치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R&D사업 기획연구과제를 제시하였고, 심평원은 의료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전국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표하는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건보공단은 최근 가입자의 진료내역, 검진결과, 거주지 및 보험료, 영양기관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민건강정보를 대표하는 연구용 표본DB를 구축하여 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의료분야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민감한 진료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해당 환자가 심각

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더불어 의사의 진료기록이 공개됨으로써 의사들이 권익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른 기관간 환자정보의 원활한 연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고 보건의료분야 관련정보 공개가 어려워 실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가 국민보건향상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세재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먼저 3명의 전문가가 주제를 발표하였는데,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사례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심평원, 공단, 통계청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 뿐 아니라 비정형화된 빅데이터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국가빅데이터센터(National Big Data Center)를 설립하여 “의료분야 개방형 및 혁신형 연계(Medical Open Innovation Connectivity, MOIC)”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연자인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에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환자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도움이 되나 공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연자인 충북의대 이영성 교수는 “정부 3.0과 의료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정부 3.0에서 지향하는 바가 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전문가가 향후 추진하여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

부와 언론, 학계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는데, 배종면 교수는 빅데이터의 윤리적인 측면,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언론에서 보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명암, 김주한 교수는 의료정보의 기술적인 측면, 이영조 교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자료를 포함한 자료연계와 통계분석, 보건복지부 이태한 실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혁명의 저자인 권대석 박사는 비의료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건 의료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우려와 기대를 발표하였다.

짧은 시간에 IT강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들이 대부분 전산화되어 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환자진료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매우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

다. 그러나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인 진료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국민들은 물론 국회나 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정부관리 및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과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원로와 중견학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많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11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제11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기초의학부문은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김인겸 교수(52세)가 임상의학부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윤영호 교수(49세)가 수상하였으며, 시상식은 11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조선히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상으로 한국 의학계의 비전제시와 의학 분야 연구 경쟁력을 높여 한국의학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의학상으로 상금은 각 3,000만원이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김 인 겸 교수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교실)

학 력

1980년 - 1986년 경북대학교 의학 의학사
1987년 - 1989년 경북대학교 약리학 의학석사
1989년 - 1992년 경북대학교 약리학 의학박사

주요경력

2013년 - 현재 대한고혈압학회 기초연구회장
2010년 - 현재 경북대학교 심혈관연구소장
2001년 - 2003년 Harvard Medical School 연구원 (Dr. WJ Dzau Lab)
1997년 - 1999년 Boston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연구원 (Dr. KG Morgan Lab)
1995년 - 현재 경북대학교 약리학 전강-교수

주요수상경력

2010년 5월 최우수연구상 대한고혈압학회
2009년 2월 최우수강좌상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000년 2월 법석학술상 을지장학재단

수상 소감

화이자의학상을 제정해서 한국 의학 연구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남궁성은 회장님과 회원님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님과 임직원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병인 심사위원장님으로부터 화이자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로부터 오늘까지 달포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 때였습니다. 친지와 친구들과부터 분에 넘치는 찬사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의 축하 인사촬영과 수상식을 준비하는 것도 무척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7년 전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부모님 뜻과 다르게 임상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기초 의학을 전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된 것도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당신께서 물려주신 '과학적 호기심' 때문에 기초 의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먼 훗날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척 행복했던 날

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이 흠족해하는 것을 바라볼 때나, 약리학 강좌를 최우수 강좌로 평가를 해줄 때면 삶의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교감신경성 신경전달에 미치는 부신 수질 및 Renin-Angiotensin계의 역할’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김중영 지도교수님께서 앞으로 평생을 고혈압 연구에 매진 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때의 가르침이 이번 수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초임교수 시절 미국 생체물리학회 참석 중 만난 박춘식 울산의대 (명예)교수님께서 당신은 과학자로 성공할거라며 격려해주신 점도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의현 경북대학교 심혈관연구소장님께서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심혈관연구소 직인을 저한테 맡기고 훌륭한 연구소로 키워보라고 하신 말씀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험실의 석박사 졸업생과 재학생들, 특히 명석한 머리와 깔끔한 손재주로 수상논문을 완성한 이혜암 박사와 이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조부모님,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해주신 장모님과 아내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신약 개발 연구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미래의 의과학자 네 딸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 요약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체액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전사 작용을 제어하는 분자 스위치(아세틸화/ 탈아세틸화)를 밝힘으로써,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활성을 조절해 새로운 고혈압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몸의 70%는 체액이다. 우리 몸은 적절한 양의 체액이 존재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우리가 섭취한 나트륨(소금)의 99%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이 중 극히 일부가 콩팥에서 재흡수 되는데 이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염류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다. 만약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몸 안으로 재흡수되는 나트륨 양이 많아지

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 양은 줄어든다.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가 늘어나면 체액(세포 밖 체액의 25%가 혈액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혈압도 높아진다. 반대로 염류코르티코이드가 제 역할을 못해서 나트륨 재흡수가 줄어들면 혈압도 떨어진다. 체액 조절에 장애가 생기면 부종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염류코르티코이드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전해질 수송체를 만들어 나트륨 재흡수를 조절한다. 염류코르티코이드는 콩팥 세뇨관 상피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질에 대기하고 있는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는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 나트륨 재흡수 증가와 칼륨 분비를 촉진하는 ‘전해질 수송체’를 만들어 체액의 양을 조절한다. 전해질 수송체를 만드는 임무를 마친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는 세포핵 밖으로 나와 세포질 내에 대기한다.

본 연구팀은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아세틸화’되면 더 이상 전사인자로 작용하지 않아 체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세포핵 안에서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중이라도 아세틸화되면 더 이상 전사인자로 작용하지 않아 ‘전해질 수송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아세틸화시키는 약제를 찾으면 기존의 약제로 치료가 힘든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세포 실험을 통해 아세틸화된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탈아세틸화 과정이 ‘제3형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동물 실험을 통해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를 억제하면 고혈압 발생이 억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제3형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는 기억 상실, 대사성 질환, 혈관내피 기능장애, 고혈압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염류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아세틸화 효소를 규명하고 있다.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윤 영 호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학 력

- 1984년 - 1990년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 1998년 - 2000년 서울대학교 가정의학 석사
- 2000년 - 2002년 서울대학교 가정의학 박사

주요경력

- 2012년 - 현재 서울대학교 강남헬스케어센터 (연구소장)
- 2012년 -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 (실장)

2006년 - 2009년 국립암센터

2005년 - 2006년 MD Anderson Cancer Center (Visiting Scientist)

주요수상경력

- 2011년 함춘의학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 2011년 보령우수연구자상 한국임상임학회
- 2009년 장관상 보건복지가족부

수상 소감

우선 부족한 저에게 큰 영향을 안겨 주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심사위원님들과 이 상을 제정해 주신 한국화이자제약

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임상연구의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며, 감히 제가 화이자의학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의외의 결과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으나 겸허한 마음으로 보다 훌륭한 연구를 하라는 격려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 과연 저를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암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주제와 인터넷기반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방법을 임상의학분야로 인정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분야의 보다 나은 학문적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으로서 암 환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1992년 3년차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님을 찾아뵙고 ‘암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4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이 첫 연구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연구를 통해 암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저는 계속되는 의문점을 풀기 위해 연구를 했고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논문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대석 교수님께서도 끊임없는 지도와 깨우침으로 저를 연구하는 의사로 키워주신 멘토이십니다. 허대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문은 국립암센터 박상윤, 오재환, 이은숙, 김영우, 이근석, 정소윤, 이우진 선생님과 삼성서울병원 김성, 심영목, 조제일 교수님,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영, 박규주, 정승용, 박지원 교수님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의 정기욱 교수님과 함께 설계하고 진행했으며 국립암센터 김영애 선생님과 연세대학교 박소희 교수님께서 통계를 담당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가정의학과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분야를 가치 있다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신뢰해주시는 허봉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소홀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준 아내 최윤정과 상연이와 석진이, 그리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받은 영광을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려드리며 오늘 받은 상금을 암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기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지원해 주시고 끌어주셨던 선생님들과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문 요약 및 연구의 의의

암환자의 60% 이상이 피로를 호소할 정도로 가장 흔한 증상이며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나 약물요법 효과가 제한되어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이 논문은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개 병원의 1차 암 치료가 종료된 암환자 273명을 대상으로 '건강 네비게이션'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검증한 다기관임상시험 연구결과이다. 건강 네비게이션은 인터넷 기반의 건강 자가관리 프로그램으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의 가이드라인과 범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과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의 전략을 기반으로 식이, 수면, 통증, 운동, 마음안정 등 암환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행동변화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주도성, 편리성, 지속성, 참여성, 피드백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연구팀은 1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진료와 함께 12주 동안 환자의 운동, 식이, 수면 위생, 통증 관리, 디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하여 필요한 교육을 환자의 행동변화 단계에 맞추어 '건강 네비게이션'을, 1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는 통상적인 진료만 받도록 하고 피로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중재 12주 후 추적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의 피로 개선 및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피로도를 평가하는 주요지수로는 BFI(Brief Fatigue Inventory)와 FSS(Fatigue Severity Scale)가 이용됐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그룹은 BFI(0~10점)와 FSS(1~7점)가 평균 4.01점과 3.46점이었으나 12주 후에는 1.09점과 0.68점이 떨어졌다.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에서는 BFI와 FSS 점수가 평균 4.26점과 3.72점이었으나 12주 후에는 0.57점과 0.33점이 줄어드는데 그쳤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피로 개선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BFI가 4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피로를 호소한 참여자 중 56%와 47%가 BFI와 FSS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룹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피로도가 개선되어 대조군(45%, 36%)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불인과 정서적 기능도 개선하는 효과도 있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의료기관에서도 개인 맞춤형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웹 기반의 ICT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교육프로그램인 '건강 네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등 암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를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이 임상시험은 그동안 암 환자 피로에 대한 약물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웹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암 환자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로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성과이다. 건강 네비게이션은 자동차에서의 네비게이션에서 착안한 것으로 현재의 위치와 목적지가 정해지면 다양한 선택과 예측 정보를 제공해주고, 운전 중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줌으로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해 주는 것과 같이 건

강 측면에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에 대한 적용하여 건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특히, 임상시험결과가 임상종양학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된 점은 우리나라 ICT의 우수하기 때문이었으면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전략을 활용한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의 건강관리의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ICT로 구현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4회 학술포럼 '치매 없는 노년' 개최 보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건희 홀에서 '치매 없는 노년'을 주제로 '제4회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나덕렬(성균관의대 신경과학) 교수가 '치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한설희(건국의대 신경과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치매의 사회적인 관점과 치매의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6분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는 '치매의 공중보건학적 영향' (이윤환 아주의대 예방의학 교수), '국가치매정책의 현황과 계획' (임우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 '치매의 사회·문화적 이슈' (박상기 조선일보 사회부기자), '치매 치료와 예방 효과에 대한 역학적 근거'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 '병인 기전에 근거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북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치매 연구의 현황과 성과:CRCD 및 K-ADNI' (김성윤 울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제32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보고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는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제32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일본의 서양의학용어의 도입과 일본의학용어의 발전과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본 원탁토론회는 김강현(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지제근(서울의대 병리학)교수와 송지영(경희의대 정신과학)교수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보건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개최 보고



대한민국과학기술원은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교수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박형욱(단국대의대 인문사회의학)교수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과 정책’, 이영성(충북대의대 의료정보학 및 관리학)교수가 ‘정부 3.0과 의료 빅데이터’에 대

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임태환(울산의대 영상의학과)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와 언론, 학계 및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6분의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0차 분회총회 개최 보고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가톨릭의대 성의회관 8층 START 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 분회총회가 개최되어 각 분회별 2014년도 임기정회원 선출에 관한 건등이 논의되었다.

회원 동정



권건영 (임기정회원)

권건영 회원(계명대의대 병리학)이 10월 18일 개최된 대한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 평위원회에서 차기 대한병리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권건영 교수는 지난 9월 5일~8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태평양병리학회 기간 중 창설된 아시아태평양병리학회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년부터 2년간 아시아태평양병리학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현재 권교수는 대한병리학회 국제병리위원장, 국제병리학회 한국지부 대표 및 아시아태평양병리학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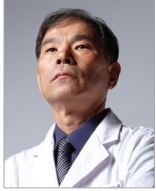


박병주 (임기정회원, 정책개발위원)

박병주 회원(서울의대 예방의학/한국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이 국제약물역학회(ISPE)에서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ISPE측은 8월 25~2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9차 학술대회에서 약물역학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과 아시아 지역 약물역학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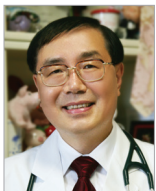
박 교수는 ISPE 학술상임이사(2001~2003)와 국제개발위원회 위원장(2004~2012)을 역임하였으며, 2006년 제1차 아시아 약물역학 학술대회(상해)를 시작으로 매년 아시아 지역 학술대회 개최를 이끌었다. 특히 200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약물역학 학술대회에서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약물역학네트워크(AsPEN) 구축을 제안하여 발전을 이끌고 있다. 2010년 8월부터는 ISPE가 발행하는 국제약물역학회지(PDS)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담당 초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약물역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동정



임현술 (임기정회원, 제3분회장)

임현술 회원(동국대의대, 예방의학)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예방의학회는 10월 24일, 25일 양일간 대구 호텔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65회를 맞이하는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사회와 자살, 공중보건학적 접근과 예방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 더불어 총 55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자살 예방을 주요 주제로 하여 감염병, 만성질환, 학생교육, 공공정책, 군진의학, 건강불평등, 근로자 자살 등 총 12개의 심포지엄, 2개의 조찬세미나, 216편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교류는 물론 정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주제 발표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해 그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위한 근거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명호 (임기정회원)

정명호 회원(전남대의대 내과)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되었던 61차 일본 심장학회에서 1시간 동안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의 성공적인 관리 경험에 관한 특강을 하였으며, 한국-일본 공동 심포지움에서는 한국대표로 20분간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용출 스텐트 시술' 경험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그리고 10월 25일에 보건복지부 융합과제로 '심혈관계 융합연구센터'가 선정되어 향후 6년 동안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심혈관계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조용현 (임기정회원)

조용현 회원(가톨릭대의대 비뇨기과)은 2013년 6월 아시아 요로감염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2003년 설립된 아시아 요로감염 학회는 아시아 20여 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회장의 임기는 5년이다. 그리고 9월에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에 취임하였다.



최병인 (임기정회원, 학술위원장)

최병인 회원(서울의대 영상의학)은 지난 10월16일 제14회 간의 날 기념식에서 간 영상의학 분야의 교육, 연구, 진료와 국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최 교수는 간암연구회 회장, 간학회 회장, 간재단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한간학회를 국제화하고 간암 분야의 영상 의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학용어 원탁토론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일반 국민들이 널리 쓰거나, 전문용어라도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달라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의학 관련 전문용어를 선별하여, 이들에 관한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거쳐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용어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3회 의학용어 원탁토론회는 '북한의 의학용어 발전과정'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주제 : 북한의 의학용어 발전과정 주제발표 : 김주한 교수 (현양의대 신경과), 손승국 교수 (연세의대 외과)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제1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회원 선출, 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정회원 정원조정, 의학한림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시 :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장소 :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소재)

후원 안내 및 후원 현황

후원 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인 2014년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재정자립을 통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제안과 의학한림원의 각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 회원을 비롯한 단체, 기업 등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신 기금은 의학 발전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과 학술 포럼에 사용될 뿐 아니라 의학한림원 10주년 기념행사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참여가 의학한림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현황

2013년도 11월 30일까지 후원하여 주신 회원님들.

박 준 영 (명예회원)

서 교 일 (명예회원)

윤 대 원 (명예회원)

김 병 길 (중신정회원, 제4분회-소아청소년과학)

지 제 근 (중신정회원, 제2분회-병리학)

강 성 귀 (임기정회원, 제4분회-내과학)

김 진 (임기정회원, 제2분회-해부학)

남궁성은 (임기정회원, 제5분회-산부인과학)

박 병 주 (임기정회원, 제3분회-예방의학)

선 경 (임기정회원, 제5분회-흉부외과학)

이 승 규 (임기정회원, 제5분회-외과학)

임 정 기 (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조 승 열 (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채 종 일 (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최 병 인 (임기정회원, 제6분회-영상의학)

홍 성 태 (임기정회원, 제2분회-기생충학)

현재까지 후원금액

약정액 : 60,042,000원 실후원액 (2013년 11월 30일) : 44,499,680원

소중한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투고안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매체로서 의학 진흥과 학문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의 대변지입니다. 보다 활성화 되고 폭넓은 여론의 광장으로서는 명실상부한 뉴스레터 편집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발 행 일 : 연 4회(3월/6월/9월/12월) 발간

· 접 수 처 :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편집실
전화 : 02-795-4030 팩스 : 0502-795-4030 e-mail : namok@kams.or.kr

· 투고내용 : 제언, 회원 근황, 행사안내, 기타 홍보사항

· 원고접수 : 수시접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제11호

발행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Tel. (02)795-4030 Fax (0502)795-4030

발행인 | 남궁성은 | 편집인 | 김진 | 인쇄 | 아람에디트 Tel. (02)2273-2497